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로 제2의 한강 작가 배출 나선다

노벨문학상 배출·책읽기 열풍 확산
서점 20여곳 선정 프로그램 지원
23일까지 인문·독서모임 등 공모

광주시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해 제2의 한강 작가 배출에 나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역서점 20여곳을 선정해 인문프로그램·독서모임 등 지역서점 특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2025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불고 있는 ‘책 읽기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공모는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과 ‘독서모임 운영 서점’ 등 두 개의 유형으로 진행된다. 서점의 역량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은 서점의 특장점을 살려 책을 중심으로 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횟수는 3회차 이상으로 강연, 북 토크, 영화·음악과 같은 타 장르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할 수 있다. 선정된 서점은 선정 내용과 진행 횟수 등에 따라 건당 300만~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서점 대표가 직접 5회차 이상의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인 ‘독서모임 운영 서점’의 경우 지역 작가 등 독서 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서점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서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관련 서류를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 나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시민소통의 공간이자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인 지역서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서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선 'D-25' 광주선관위 홍보물 점검
8일 광주 서구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ACC재단 사장 김명규·이사장 송진희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 사장에 김명규(53) 전 영화제작사 광대무변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사장은 목포 문태고,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택시 드리벌’, ‘파우스트’ 등 연극 20여 편과 ‘남자의 향기’, ‘미녀는 괴로워’, ‘화려한 휴가’ 등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동했다.
김 사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단한 광대무변에서 활동하다가 유 장관이 처음으로 공직에 몸담게 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극단 대표를 맡았다. 또한 조선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와 스테이지 엑스이엔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신임 사장 임명이 유인촌 장관과의 같은 극단 활동 이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향후 ACC와 협력해 퀄리티 있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ACC재단 이사장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 부회장인 송진희(66) 전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송 전 교수는 독일 국립핀스터 응용과학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단장, ACC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제7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송 이사장과 김 사장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이들은 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I·모빌리티·재생에너지, 광주·전남 새로운 기회 될 것”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 세미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는 8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안도걸(광주 동남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AI(인공지능) 컴퓨팅 파크 및 RE100 국가산단 조성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됐다.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광주만의 초격차사업인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AI경쟁력의 해법은 집적과 속도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전

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보좌관은 이를 위해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10조원) ▲AI데이터 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글로벌 AX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조성(9000억원)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5000억원) ▲양자·휴머노이드 케크산업 기반 구축(1조원) 등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RE100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 일원에 AI·모빌리티 기술융합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 최첨단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과 탄소중립 선도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RE100 스마트 산단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한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재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기획처장은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는

만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 중심으로 혁신 역량을 확보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재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도심 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서 광주·전남 메디컬 바이오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안)을 제시했다.
민 원장은 “광주와 전남도 초광역권, 아시아 암허브 클러스터를 통한 상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광주는 혁신 의료기기, 첨단재생과 AI실증 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산업과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하고, 화순은 임상과 치료, 관광이 결합된 환자 중심의 아시아 암 치료 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부위원장은 “AI와 모빌리티, 재생에너지는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다른 광역단체들도 AI산업을 노리고 있는 만큼 광주가 AI2단계 사업을 완성해, 광주가 AI를 주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 ‘내란 재판’ 윤석열 포토라인 선다

공수처, 채상병 사건 일부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만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며 “대상 기관의 협조 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 교통약자석 비율 34%까지 높여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시트의 교통약자석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광주교통공사는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 과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전동차 의자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총 23편성 92량 3820석의 시트를 전면 새시트로 교체 했다. 이번 전면 교체시 기존 29%였던 교통약자석 비율을 전체 좌석의 34%까지 높였다. 구체적으로 1편에 48석이었던 교통약자석을 56석으로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석과 나란히 배치했던 임신부 배려석을 일반석 구간으로 옮김으로써 임신부 및 영유아 동반 승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승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3가지 색깔(일반석 녹색,교통약자석 남색,임산부배려석 분홍색)로 구분했다.

부 배려석을 일반석 구간으로 옮김으로써 임신부 및 영유아 동반 승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승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3가지 색깔(일반석 녹색,교통약자석 남색,임산부배려석 분홍색)로 구분했다.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난연소재인 ‘모켓’(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코트나 재킷에 쓰임)을 사용해 화재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 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